

마드리드 시민 “박해 종결 위해 최선 다할 것”

[명후이왕] 2022년 9월 17일 오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여느 때처럼 도시 중심부의 칼라오 광장에서 “중국에서 자행되는 생체 장기적출 중지에 도움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지 촉구” 등의 진상 현수막과 반(反) 박해 전시판을 펼쳐 눈길을 사로잡는 소식을 전했다.

마드리드 파룬궁 수련자들이 도심에서 반(反) 박해 서명 운동을 개최했다.

광장을 지나가던 호세 루이스는 감동하여 말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박해 소식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데, 인권 박탈은 자유 상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세계 어느 구석진 곳에 있든, 이런 기본권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는 또 “모든 독립적인 개인과 국가는 마땅히 진상을 알리고 거짓말과 박해를 폭로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31세의 다니엘은 친구와 함께 부스 앞에 멈춰 서서 더욱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그들도 박해 소식을 처음 알게 되어 다니엘은 경악하여 말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을 뿐,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이렇게 잔인한 박해를 받고, 더구나 23년이나 박해가 계속 되었다니요.”

다니엘은 중공과 같은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첫 단계로 해야



▲마드리드 파룬궁 수련자들이 도심에서 반(反) 박해 서명 운동을 개최했다.

할 일은 진상을 전파해 널리 알리는 일이며, 그렇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이런 범죄행위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므로, 사람들도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의 친구 쿠오모도 말했다. “이건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중공)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할 권리는 고사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박탈할 권리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록사나와 그녀의 남편은 파룬궁의 반박해를 지지하며 서명을 했다. 록사나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진선인(真·善·忍)의 이념을 널리 전하는 것을 중공에서 금지한다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체 장기적출 같은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대하고 지극히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도 독재여서 저희도 공감을 느껴 우리는 여러분을 영원히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파룬궁 당신들처럼 올바른 길을 가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는 평화와 자애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란에서 온 세티는 파룬따파 음악이 자신을 부스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태극권을 수련해 왔으며, 틀림없이 파룬따파를 배우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방금 들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박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정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아직도 그곳에서 생체 장기적출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철두철미한 범죄예요. 중국(중공) 정부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파리에서 휴가차 온 릴리아 베나카르초는 부스에서 중국의 파룬궁 박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이러한 박해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세계 각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TV 채널과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박해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파룬궁의 기적적인 효과

유방암에서 회복



[명후이왕]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암 사례는 1900 만 건이며 , 그중 유방암이 230 만 건이다 .

유방암의 심각성은 사망률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 . 암으로 사망한 여성 440 만 명 중 68 만 명이 유방암이었다 . 아직 희망은 있다 . 파룬궁 수련자 수천만 명이 목격한 것처럼 , 이 수련은 수련자들의 심신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며 유방암에서의 회복도 포함된다 .

1 파룬궁 수련 후 유방암에서 회복한 가수

투 히엔 타 (Thu Hien Ta, 34) 는 베트남 북부 럽동성 사람이다 . 그녀는 재능있는 가수이자 배우이며 소규모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히엔은 2015 년 둘째 딸을 출산한 후 몸이 좋지 않았다 . 오른 쪽 가슴에 혹이 생겼는데 덩어리가 처음에는 작고 단단했지만 , 단기간에 더욱 커졌다 . 그녀는 유달리 피로감을 느껴 건강 검진을 받으려 베트남 국립 암병원에 갔지만 진단 결과는 참담했다 . 유방암 3 기여서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다 .

히엔은 암울한 소식에 절망했고 두 딸의 미래가 걱정됐다 .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느꼈어요 . 가족들도 충격받고 절망했죠 .” 나중에 그녀는 말했다 . 1 차 수술 후 히엔은 개선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고 종양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 그래서 의사는 2 차 수술을 제안했다 .

2 차 수술에 이은 화학요법은 그녀 건강에 큰 타격을 줬다 . 끝없는 고통과 피로 , 두려움을 가져왔다 .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 잠을 못 잤죠 . 매일 밤 제 장례식을 상상하고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딸들을 걱정했어요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강인함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 고통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 오랜 고통 끝에 그녀는 남은 몇 차례 화학요법을 거의 포기하고 남편에게 치료를 포기해 달라고 간청했다 .

2015 년 10 월 , 히엔은 여덟 번째 화학요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 교사로 막 은퇴한 사촌 민 후엔 응우옌 (Minh Huyen Nguyen) 이 그녀를 찾아왔는데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 그녀는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 (轉法輪)’ 한 권을 히엔에게 줬다 .

사촌은 말했다 . “이것은 가장 소중한 책이야 . 끝까지 읽어보아 해 .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거야 .”

암에 걸리기 전 히엔은 무신론자였으며 과학 이외의 것은 믿지 않았다 . 그러나 사촌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히엔은 가족과 함께 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수련해보기로 했다 . 히엔은 ‘전법륜’을 읽은 후 마음이 크게 편안해졌다 . “몸이 구름처럼 가볍다는 것을 느꼈어요 . 가장 놀라운 것은 제 모든 질병 , 두려움 , 죽음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

“검사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제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인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 그녀가 덧붙였다 . “‘전법륜’에서 가르치는 원칙을 배우자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 저는 이제 부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

히엔은 자신과 유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위해 선행을 하라고 권하며 , 선의 힘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녀는 모두 자신처럼 행운을 만나길 바랐다 .



▲ 화학치료 중의 투 히엔 타 (왼쪽) , 건강을 회복한 모습 (중간) , ‘전법륜’을 읽는 투 히엔 타 (오른쪽) .

2 파룬궁 수련 3일 만에 새롭게 가슴이 자라다

마중보(馬忠波)는 흑룡강성 할빈시 주민이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파룬궁 박해를 명령한 후, 그녀는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납치당해 완자(萬家) 노동수용소에 갇혔다. 9일간 고문을 당한 후,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 열이 났다. 오른쪽 가슴엔 통증이 있었는데 20일 이상 계속됐다.

어느 날 저녁, 부어오른 가슴이 갑자기 터지면서 피와 체액이 많이 뿜어져 나왔다. 경비원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다. 의사는 그녀의 가슴을 확인하고 유방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녀는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노동수용소는 책임을 피하려고 즉시 마 씨를 석방했다. 8개월간 갇혔던 그녀는 2001년 7월 6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 씨는 지치고 기운이 빠졌다. 한 친구가 대퇴골 골절이 수련으로 치유됐다며 그녀에게 파룬궁 수련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서 있는 동안 떨렸지만, 여전히 연공을 해낼 수 있었다. 연공을 마친 후, 마 씨는 마치 전기가 충전된 것처럼 온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편안하고 활기차며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느낌이었다. 통증과 부기도 사라졌다. 그녀는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관찮아! 더는 고통이 없다!”

3일 후, 그녀의 유방에서 새로운 조직이 자라기 시작했다. 무서운 유방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됐다.

이웃은 이 기적을 보고 흥분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믿어요!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치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며칠 동안 파룬궁을 수련했을 뿐인데 저렇게 빨리 나왔어요. 파룬궁은 정말 좋네요!”



마중보

3 기적을 만난 여배우의 어머니

2013년 대만에서 캐나다로 이주해 신세기필름의 배우가 된 왕홍원(王虹文)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온 가족이 망연자실했다. 병원에 갔지만 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어머니는 계속 토했고 점점 더 약해졌다.

왕 씨의 어머니는 세 자녀를 걱정하며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암 자체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도 생겼다.

“당시 어머니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온종일 우셨어요.” 왕 씨는 회상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위로하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왕 씨의 어머니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한 친구로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듣고 수련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체 연공에 나갔으며 저녁에는 다른 수련자들과 함께 법공부를 했다.

“어머니는 점차 울음을 그치

고 고통에 대해 말씀을 덜 하셨어요. 대신 어머니는 종종 단체 연공에서 들은 기적을 제게 이야기 하셨어요.”

왕 씨는 회상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고 격동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놓여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변화에 기뻐했어요.” “드디어 저는 어머니 얼굴에서 차분하고 편안한 미소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 왕 씨는 파룬궁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파룬궁을 발견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파룬궁은 우리 가족을 구했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를 돌려줬습니다.”



▲ 신세기필름 배우 왕홍원.

4 유방암에서 회복한 수련자

양하이샤(楊海霞, 63)는 흑룡강성 대경시 주민이다. 그녀는 양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어 수술을 받았다. 절개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고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양 씨는 운 좋게도 1997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따랐다.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개 부위가 완전히 아물고 건강을 되찾았다. 양 씨는 다시 자신을 돌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도 돌볼 수 있었다. 세심하게 보살펴드렸기에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욕창이 없었다.

5 유방암과 뇌암이 한 달 만에 치유
 홍콩 시민 천씨는 2016년 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화학요법을 받았다. 1년 후 암이 재발해 뇌로 전이됐다. 의사는 치료할 수 없고 그녀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절망적인 시기에 한 친구가 천 씨에게 파룬궁 수련을 권했다. 그녀는 과거에 불교를 수련했기에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의 제목을 보고 이 책이 매우 특별한 책임을 알았다. 그녀는 삶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으며 파룬궁의 가르침에 따라 잘 수련하려 했다. 그녀는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수련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의 몸은 여전히 허약해 샤워할 때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다. 단체 연공하러 근처 공원에 갈 때도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천 씨는 꾸준하고 끈기 있게 버텼다. 차츰 그녀는 혼자서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수련을 지속하자 유방암과 뇌암이 약물 없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나았다.

6년이 지났다. 천 씨는 지금도 몸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하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번씩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천 씨는 파룬궁이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고 그녀의 가족을 구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 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썬싼런하오(真善忍好)'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유방암과 뇌암이 나은 천 씨.

6 10년간 병원에 가지 않다
 대만인 뤼메이화(羅美華)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자주 아팠고 병원에 자주 갔다. 2003년 어느 날 그녀는 파룬궁에 대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련을 시작하지 않았다.

2006년에 뤼 씨는 다른 기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11년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반복했으며 매번 매우 허약하고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극도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종종 자살을 생각했다.

2013년 2월, 뤼 씨는 신베이시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미국 선원예술단 공연을 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뤼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가해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의 비디오 강의를 들었다. 그 후 그녀는 단체 연공하고 지역사회에 파룬궁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약 10년이 지났지만 뤼 씨는 지금까지 줄곧 건강하다. 더는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파룬궁과 리 사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몇 년 전에 죽었을 겁니다. 파룬궁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니다."



▲ 10년 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고 유방암에서 회복된 뤼메이화.

7 영어 교사, 파룬궁 수련 후 유방암 사라져

정진렌(鄭金蓮)은 대만 원린현의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은퇴한 후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여행을 다니며 여가 생활을 즐겼다.

한 달 후 그녀의 암은 2기로 진행됐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그녀는 화학치료를 받았다. 1차 화학치료 후 그녀는 매우 허약함을 느꼈고 고통스러웠다.

3주 후 2차 항암치료를 받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 체중이 9kg 이상 줄었고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다. 의사들은 그녀가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을지 우려했다. 6차 치료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 면역력이 떨어져 연기됐는데 계속 치료하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정 씨는 한 학생이 건강에 좋다고 수련을 권하며 그녀에게 준 파룬궁 책이 생각났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서를 읽기 시작했고 연공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그녀의 혈액 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다. 의사는 앞으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 씨는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정진렌

천도
문회

여러명 정법위 큰 호랑들 업보 받아 판결받다

[명후이왕] 2022년 9월 하순, 전 중앙 610 주임, 중공 사법부 부장 푸정화(傅政华), 그리고 전 국가보안 총두목, 중공 공안부 부장 쑤리쥘(孙力军)은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사형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종신 구금형을 받게 되며,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가하다.

이전 9월 21일, 강소성 전 정법위서기 왕리커(王立科)도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상해시 전 부시장 공안국 전 국장 궁도안(龚道安)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중경시 전 부시장, 공안국 전 국장 덩후이린(邓恢林)은 1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산서성 전 부성장, 성공안청청장 류신윈(刘新云)도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푸정화, 쑤리쥘, 왕리커, 궁도안, 덩후이린, 류신윈은 모두 중공 강택민집단의 파룬궁 박해를 주도한 집행자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심한 고문으로 피살당한 것에 대해 그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피로 빚어진 하나하나의 빛은 하늘에 사무친다! 몇년전만해도 이런 정법위 호랑이들은 권리로 한때는 비바람을 불러일으킬 기세였는데 어느새 그들은 하나 하나씩 감옥살이 신세가 돼버렸다.

■ “늑대” 푸정화가 진 피의 빛

푸정화는 공안계통에서 48년간 임직했다. 역차 북경시공안국 국장, 공안부 부부장, X교문제영도소조 부조장, 중앙 ‘610 판공실주임, 사법부 부장, 전국 정치협상회와 법제위원회 부주임직을 역임했다.

푸정화는 중공 정치 박해에서 전문 타자로 지목돼 ‘극한 악역’, ‘흑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푸정화는 중국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사례를 여러 건 주도하거나 관여했다. 푸정화는 중공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주요한 방황이다. 여러해동안 적극적으로 각종 인성을 멸절하는 박해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면 중공 19대전 푸정화는 친히 “노크하기” 운동을 계획하여 전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대량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했다.

소위 ‘노크하기’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반 파룬궁 전국캠페인은 중앙 610 사무소가 지휘하고 공안부를 통해 지역파출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가 실행하도록 조율됐다. 수집된 정보목록을 가지고, 관계자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안부 방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수련생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들에게 수련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수련생들이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자 대량의 수련생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이 약탈당해 가족들도 영향을 받았다. 일부 수련생들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 국보 총두목 쑤리쥘은 죄악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전 중공 당 수괴(黨魁) 강택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 ‘헌법’과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피해 파룬궁 박해 전담 기관인 ‘파룬궁 문제 처리 중공 중앙 영도 소조’를 조직해 그 산하에 사무실을 두었다. 이 사무실을 ‘6.10’ 사무실이라고도 하여, 국보 경찰을 ‘6.10’ 경찰이라고도 한다.

20여년간 강택민은 불법 기관 ‘6.10’ 사무실을 이용해 국보 경찰을 조종하여 공개 또는 음성적 박해 수단을 써서 파룬궁 수련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전향’을 강요했다. 명후이왕은 중공의 엄격한 정보 봉쇄를 뚫고 파룬궁 수련자의 고문 박해 사례를 다수 수록했

으며, 그중 4000명 이상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쑤리쥘은 중공 공안부 국보 총책임자, 공안부 부부장 및 ‘6.10’ 사무실 부주임으로서 죄악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파룬궁 박해의 급선봉자인 버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수룽(苏荣), 쉬차이허우(徐才厚, 심사전에 사망), ‘610’ 두목 리동성(李东生), 왕리쥘(王立军) 등 중공 고위관리는 감옥에 들어갔으며 이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자의 비참한 앞날을 예고했다.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않았다. 이는 하늘이 당사자와 방관자들에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렸던 것이다.



연변 정법위, 공안국에서 파룬궁 박해한 악행

[명후이왕] 2022년 4월 7일 부터 지금까지, 연변지구에서 10명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 및 집수색을 당했다. 그중 2명은 불법 선보석 후심판 선고를 받았고, 1명은 연길시 수감소에 불법감금 되었으며, 4명 파룬궁수련생은 룡정시에 납치돼 불법구금을 받았다. 최근에 연길시와 룡정시에서 또 여러명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소란 받았다. 주요 집행자와 지휘자는 연변주 정법위서기 저우진싱(周金星), 연변주 공안국국장 단위젠(段于建), 연길시 정법위서기 천항파(陈航发), 연길시 공안국 국장 문경춘(文京春)이다.

2022년 4월 7일_6월 25일, 연변 화룡시에서 4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되고 집수색을 당했다. 그중 화룡시 푸(付) 씨와 린(蔭) 씨 파룬궁수련생은 역병을 피하는 진상자료를 배포했는데 감시카메라 추적으로 화룡시 문화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돼 두사람은 현재 불법으로 선보석 후 심판 선고를 받았다. 팔가자 림업국 유치원교사 순칭취(孙庆菊)는 화룡시 사회보험국에 무리하게 차단당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한 이유 때문에 화룡시 팔가자진 파출소에 불법 납치되고 집수색을 당했으며 그날 밤에 그는 귀가했다. 화룡시 리제(李杰) 여사는 가택에서 불법 납치 및 집수색을 당했다.

2022년 8월 29일, 화룡시 팔가자 삼림 공안분국 경찰은 류펑(刘峰), 순칭화(孙庆华), 순칭취, 왕연춘(王艳春)과 이름이 불명한 파룬궁 수련생 5명을 납치했다.

8월 30일 순칭취(귀가함)를 제외한 나머지 파룬궁수련생은 화룡시에서 불법 구금됐다. 팔가자 림업국 하북파출소 경찰이 이번 납치에 참여했다. 길림성 삼림 공안국은 길림성 림업청의 직속단위이다.

9월 5일, 연변주 돈화시 파룬궁수련생 마원화(马文华)도 불법 집수색을 당했다. 강동 국보, 1소, 가도 위원회의 5,6명 인원이 박해에 참여했다. 마원화는 1소에 납치됐고, 말하기를 1년전에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轮大法好)'라는 진상도장을 찍는 과정이 감시카메라에 찍혀 불법으로 형사구류 13일을 선고 받았으나 연령이 70세가 넘었기에 석방됐다. 최근 연길시와 룡정시의 여러명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경찰의 소란을 받았으며 구실은 '호구복사'라는 핑계로 주소를 적혔다.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새로운 국장이 회의에서 아래사람에게 "일구 제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관할구에 기록된 중점인 물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연변정법위, 공안국에서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주요책임자 및 개인 정보:

◆**후자푸(胡家福)**, 중공 연변주위서기. 후자푸는 연변주 파룬궁의 박해를 총계획한 지휘자이다. 연변주 정법위서기 저우진싱, 연변주 공안국국장 단위젠 부문 인원이 참여한 조사연구회의에서 그는 파룬궁박해를 적극적으로 투입했다.

◆**저우진싱(周金星)**, 남, 한족, 1970년 2월 출생, 길림성 화룡시 사람. 2014년 11월 25일-2016년 8월 1일: 돈화시 위 부서기, 시장(전면공작). 2021년 11월 24일-지금까지, 연변주 정법위서기.

◆**단위젠(段于建)**, 남, 1976년 4월 출생. 2016년 8월 2일-2020년 4월 28일: 사평시 공안국 부국장, 공주령시 부서기, 공안국 국장, 도찰장.

2020년 4월 29일 - 2021년 11월 28일: 룡원시 부서기, 정법위 부서기, 공안국 국장. 2021년 11월 29일 - 현재까지 연변주 부주장, 주공안국 국장.

◆**천항파(陈航发)**, 남. 2011년 6월 - 2014년 9월: 화룡시 팔가자 진 부서기 진장. 2016년 9월 - 2021년 7월: 화룡시정 부당조 성원, 부서기. 2021년 9월, 연길시위 상무위원, 정법위서기.

◆**문경춘(文京春)**, 남, 조선족, 1975년 12월 출생, 길림성 화룡시 사람. 2012년 11월-2013년 9월: 길림성 연변주 공안국 행정지대 정심대대 부대장. 2015년 6월 - 2017년 4월: 길림성 연변주 공안국 국보지대 정찰대대 대대장. 2017년 4월 - 2019년 5월: 길림성 연변주 공안국 치안 경찰 지대 대장, 치안 관리 지대 대장. 2019년 5월 - 2021년 9월 22일: 길림성 룡정시 부서기, 공안국 국장. 2021년 9월 23일 - 지금까지: 길림성 연길시 부서기, 공안국 국장.

하늘에는 눈이 있고 선악에는 보응이 따른다. 지금까지 연변지구 공검법인원을 포함한 선량한 수련자를 박해해 악보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경시를 의미하는 응보 앞에서, 악행자는 즉시 박해를 멈추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 기연을 잡고, 중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퇴로를 남기고,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